

# 위대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 굵직한 전기시리즈 앞다퉈 번역출간 ... 내면세계 그린 자서전도 잇따라

바야흐로 전기문학이 꽃피고 있다. 봄철을 맞아 서점가에는 위대한 문호와 철학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본격적인 인물전기시리즈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인문학의 열풍에 힘입어 출판사마다 해외 우수 출판사의 전기시리즈 등을 본격 번역, 출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행본으로 발간된 전기, 자서전물의 베스트셀러들도 많지만 올해의 전기출판 봄은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로로로'와 '마스터즈' 시리즈 번역출간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크세쥬(Que c'est je?)문고'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주제의 제목처럼 단순한 위인전 그 이상이다. 독일에는 로보트 출판사의 '로로로(rororo)모노그라피'가 있다. 또 90년대 들어 젊은 학자들이 새롭게 조명된 유니우스출판사의 '유니우스(JUNIUS)' 시리즈도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도 20세기를 마감하며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에 대한 전기물 출간이 활발해질 모양이다. 먼저 '로로로' 시리즈가 한길사(대표 김언호)를 통해 국내에 선보인다. 총 490권의 시리즈 전권을 계약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30권을 계약, 5년내 1백권을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 새로 소개할 만한 사상가, 대중예술가 등이 다채롭게 포함되어 있다.

1차분으로 히치콕·니체·아도르노·하이데거·룩셈부르크·도스토예프스키·T.S. 엘리엇·붓다·몽크·하이젠베르크 등 10종을 3월 중순경 발간할 예정이고 2차분 10권은 7월경 퍼낼 계획이다.

"전기물은 역사읽기 봄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인물을 통한 역사읽기인 셈이다. 가벼운 석세스스토리가 가라앉으면서 인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고급독자층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한길사 기획실 이승우씨의 말이다.

도서출판 책세상(대표 김직승)이 만3년간의 준비작업끝에 내놓은 '위대한 작가들' 시리즈는 독일, 영·미, 프랑스, 러시아, 동양권 등 각 문화권마다 대표적인 작가들의 생애를 세밀하고 충실하게 다룬 본격 전기이다.

지난해 역사읽기 봄에 이어 인물읽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로로로' '마스터즈' 등 외국의 굵직한 전기물 시리즈가 속속 번역출간되는가 하면, '역사인물찾기' '위대한 작가들' 등의 다양한 전기시리즈를 준비하는 등 출판사들의 '전기물' 발간이 부쩍 늘고 있다.

사상가와 문인 예술가·과학자 등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에 대한 전기물이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외국에서 출간된 해당 작가의 전기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정본을 국내의 해당작가 전공자들이 번역했다. 권당 5백, 6백쪽의 두툼한 분량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전기 《릴케-영혼의 모험가》가 첫책으로 출간됐다. 토마스 만, 플로베르, 헨리크, 헤밍웨이, 카프카의 전기의 연말까지 선보인다. 이밖에 제임스 조이스, 프랑수아 모리아크, D H 로렌스, 앙드레 말로, 사르트르의 전기이 번역에 들어가 있다.

시공사(대표 전재국)는 영국 하퍼콜린스사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계약하고 출간을 준비중이다. 니체·프로이트·융·소쉬르·라캉·다윈·아인슈타인 등 20세기 사상가들을 망라한 이 시리즈 중 우선 18권을 계약,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리즈 발간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 발간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 홍보담당 이광자 과장의 설명.

### 역사인물과 과학철학자 전기도 활발

실천문학(대표 이석표)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자기희생을 감내한 실천적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는 '역사인물찾기' 기획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닥터 노먼 베쎈》 《케테 콜비츠》 《주덕해》 《뇌봉》 《몽양 여운형》 《랭스톤 휴즈》 《아그네스 스메들리》 《김염》 등이 그것. 그 중 캐나다 출신의 휴머니스트 의사 노먼 베쎈의 인생을 다룬 《닥터 노먼 베쎈》은 독자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출간한 지 2년 동안 25쇄 12만부의 판매를 기록하였다. 《케테 콜비츠》와 《뇌봉》이 《닥터 노먼 베쎈》에 이은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인문주의자나 이론가들의 전기나 자서전에 비해 과학자나 자연과학계인물에 대한 국내의 조망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20세기가 자연과학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생애를 통한 철학과 학문의 과정도 간과할 수 없다. 민음사(대표 박맹호)는 과학철학자 전기를 기획, 지난해 침팬지연구가 《제인 구달》과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자서전 《자연주의자》를 발간했다. 쿠르트 괴델·뉴턴·다윈·라마누잔의 전기도 곧이어 발간될 예정이다.

전기문학작가로 명성을 떨친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은 국내 번역된 책들만 보아도 그의 면모를 쉽게 알 수 있다. 츠바이크는 영웅적 행위와 천재적 업적의 이면에 놓인 '그들'에 주목한다. 시련과 운명 그리고 착오와 우연 등이 한 개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운데 탄생한 영웅이야말로 츠바이크가 주목하는 인물이다.

발자크·니체 등 세계적인 문호 9명의 비극적 삶을 그린 그의 대표작 《천재와 광기》(예문)는 전기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인류역사를 바꿔놓은 사건과 위대한 인물들의 극적인 생애를 한 편의 소설처럼 엮어놓은 에세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자작나무)는

태평양을 최초로 발견한 발보아를 비롯, 나폴레옹·괴테·톨스토이·레닌 등 12명의 생애와 주요 사건을 독특한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스코틀랜드의 여왕》은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 숙적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의 일대기. 16세기 유럽궁정이 그 배경을 이루고 종교전쟁 직전에 격화되었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이 작품의 기본골격을 형성한다. 근간인 《마젤란》에서도 츠바이크는 마젤란이 조국 포르투갈을 버리면서까지 세계 일주에 나서게 된 배경과 험난했던 항해 과정을 소설처럼 흥미있게 풀어낸다.

### 이론가의 철학세계, 문예인들의 자서전

시대를 풍미한 이론가와 철학자들의 전기도 많다. 대부분의 철학자나 이론가들의 전기는 그 후학들에 의해 활발한 편이지만 자서전도 자기고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독자층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알튀세르의 자서전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같은 경우도 흥미롭다. 일생 동안 술한 정신분석 치료에 시달려야 했으며 끝내는 극심한 정신착란 상태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교살한 알튀세르는 이 자서전에서 광기와 이성으로 뒤엉킨 자신의 삶에 대한 정신분석적 자기해부를 시도하고 있다.

예술가나 문인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도 활

# 옛 정취 듬뿍 스민 장터에 선 느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을 읽고

박이엽 · 방송작가

발한 편. 영화계의 거장 에이젠슈타인의 전기와 타르코프스키의 자서전 《봉인된 시간》 등이 있으며,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안소니 쿨의 《원맨 탕고》와 크리스틴 최의 《내 사랑의 자유, 영화의자유》(명진출판)와 김염의 《상해의 영화황제》 등이 있다. 이들 자서전의 특징은 가난과 정치적 혼란, 주류에서 벗어난 외곽지대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맨 영화 같은 인생을 담았다는 점.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을 그린 《빈센트, 빈센트, 빈센트 반 고흐》(까치)는 36쇄를 찍은 스테디셀러다. 반 고흐의 작품세계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극적으로 형상화했으며 내면을 탐구한 수작으로 꼽힌다. 백남준의 작품세계를 그린 작품도 있으며 로댕의 연인이자 여류조각가인 카미유 클로델의 생애를 담은 《카미유 클로델》도 영화의 유명세에 따라 많이 읽히는 책이다. 네루다의 자서전도 풍부한 감성과 서정을 전해준다. 73년에 출간된 《스무개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라는 자서전에 이어 94년 완역본인 《추억》(녹두)이 새로 나와 인기를 끌었다.

E.H 카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카의 여러 역사서 중 가장 잘된 역사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작가의 전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사회사와 개인사가 만들어낸 불후의 명작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는 단순히 인생의 연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세와 배경을 잘 담아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순한 사실이나 기록의 재생이 아니라 천재적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인간탐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그린 자서전의 모미는 인간내면의 풍경이 담긴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전기나 자서전은 어찌보면 그 자체가 시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다. “전기문학이 문학의 한갈래로 분류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기가 문학의 갈래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문학의 원류가 전기에 있다. 신화와 일리아드, 오디세이 등의 고대 서사시가 모두 전기”라는 것이 번역가 이윤기씨의 말이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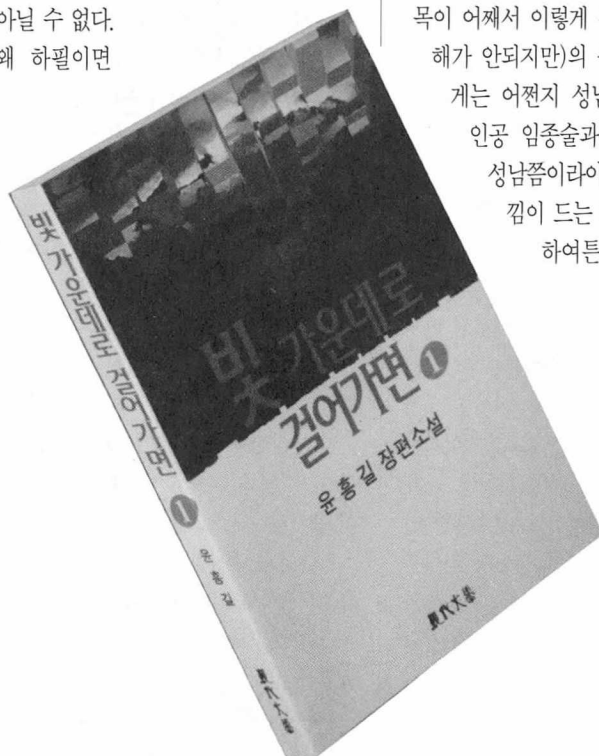
얼굴을 표현하는 말에 ‘낯꽃’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된 것도, 윤희길씨의 새 소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을 읽은 소독 중의 하나다. 낯짝과 낯꽃은 실상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일 터인데도 그 뉘앙스는 얼마나 다른가?

나는 또 이 소설에서 ‘말시바우’라는 말을 근 50년만에 처음 대하고 감개무량하였다. 이 말은 내게 코흘리던 시절의 아릿한 추억까지를 되살리게 한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 말은, 지금의 50대 이하의 분들은 무슨 뜻인지 짐작키 어려우리라.

나도 이 말이 곡마단(曲馬團)을 가리키는 어느 지방의 사투리였거나 했었는데, 지금에야 곰곰 뜯어보니 한국어 ‘말[馬]’과 일본어 ‘시바이(芝居)’의 합성어임을 알겠다. 일본어 ‘시바이’는 연희(演戲)라는 뜻인즉,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것보다 더 이전의 서커스에서는 말이 주역(主役)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윤희길씨의 이 작품에는 그밖에도 재미있고 귀한 말들이 많다. ‘뿔소스런’ ‘나토롬한’ ‘양바툼한’ ‘휘깅’ ‘이멜무지’ ‘워너니’ ‘꽤안시’ 등등. 이런 말들을 만나는 것은 흡사 옛 정취가 듬뿍 스며 있는 물건을 모란장터에서 되찾는 것 같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왜 하필이면



푸짐한 사투리의 향연과

원색적인 욕설,

둘러치고 메치는 식의

기막힌 화법,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깔려 흐르는 우리네

서민들의 끈끈한 인정,

이런 것을 대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다. 이만한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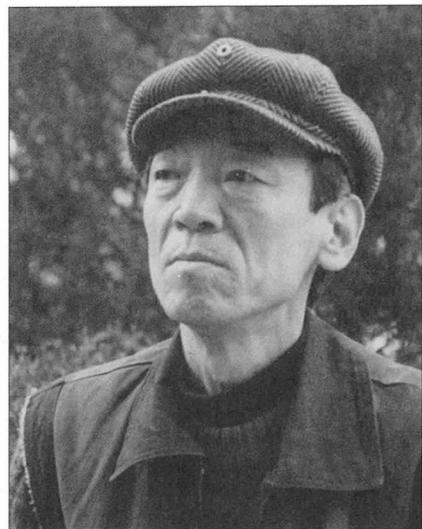
제공할 수 있는 작가가

어디 그리 흔한가.

모란장터냐고? 거기에는 내력이 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윤희길 하면 성남을 떠올리는 버릇이 내게는 있다. 그리고 나는 성남을 지나칠 때면 언제나 윤희길이라는 작가를 생각해왔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었을 때의 충격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로서는 60년대의 광주 대단지, 그 습하고 을썩년스러운 풍경화를 벗어난 윤희길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소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제목이 어찌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지만)의 무대는 서울이지만 내게는 어쩐지 성남으로만 여겨지고, 주인공 임종술과 김부월이 사는 곳도 성남쯤이야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하여튼 지금은 중견작가의



박이엽씨.

경지도 넘어섰을 윤희길씨가 장장 7백페이지 가까운 지면으로 펼쳐보이고 있는 풍속도는 의외로 단조롭다. 가난하고 무식한 주제에 성실하지도 못한 주인공 부부는 삶의 막다른 지경에서 어떤 맘씨 좋은 장로의 구원을 받았으나, 허욕이 지나쳐 휴거소동에 휘말림으로써 평도 매도 다 놓치고, 삶의 막다른 지경에 다시 섰다는 그런 이야기다.

푸짐한 사투리의 향연과 원색적인 욕설, 둘러치고 메치는 식의 기막힌 화법, 상대를 불문하고 함부로 내지르는 철면피다가도 사세가 불리하면 진흙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행투,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깔려 흐르는 우리네 서민들의 끈끈한 인정, 이런 것을 대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이만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작가가 어디 그리 흔한가? 하지만 이 정도는 윤희길씨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펼쳐 보일 수 있는 기본 실력이니, 새로운 경지는 아니다. 아쉬운 것은, 아 이 양반도 많이 편해졌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

현대문학사(전2권)/A5신/각 342면 내외/각 6800원